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수인재 유치 '밭 벗고 나섰다'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지원할 것”

전북여고·우석고 등 찾아 특강 펼쳐... 입시설명회 '찾아가는 UNI4U' 일환
대학의 우수성·글로벌대학으로의 담대한 행보 등 지역 고교생들에 적극 알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일선 고교를 직접 찾아 나섰다. 이에 따르면 양 총장은 전북대 입학처가 진행하고 있는 입시설명회인 '찾아가는 UNI4U'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전북대학교와 우석고를 잇달아 방문해

'나의 꿈, 미래 그리고 전북대학교'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스티브잡스 등 창의적인 생각으로 변화와 혁신을 실현한 이들의 사례와 학창시절부터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자신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4년 연속 재학생 만족도 거점 국립대 1위, 국제화 역량 평가 거점국립대 1위,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와 THE 세계대학평가 거점국립대 2위, 라이덴랭킹 거점국립대 1위 등 대내·외적인 전북대의 위상과 저렴한 등록금에 많은 장학금이 있는 대

학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렸다. 특히 최근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을 통해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으로 변화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주도하는 전북대의 담대한 행보를 설명했다.

양 총장은 "우리 전북대는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학·전과를 확대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전공을 마음껏 선택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며 "특히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또 지역 학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기업들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위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내년에 첨단 배터리융합공학전공과 K-방위산업공학 전공, 반도체공학 전공 등을 신설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학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총장은 "전북대는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1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전북대학교와 함께 지역과 미래를 이끄는 큰 시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남주하 학생(전북여고 3년)은 "입시를 앞두고 조금학과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총장님으로부터 담백하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며 "총장님이 직접 전북대의 우수성을 설명해 주니 전북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이 생겼고, 전북대에 꼭 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도내 고교를 직접 찾아 전북대 세일즈'에 나섰다.

/장은성기자

지역 청년 외식 창업 '요람'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전주청년키움식당 운영
복합교육 공간 조성 창업 희망자 실전 창업 경험
외식업 종사 지역민 신메뉴 개발 등 기회 제공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가 전주 청년 키움식당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외식 창업 요람이 되고 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기존 지역민의 신메뉴 개발·업종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키움식당의 1차 운영팀인 '늘봄'은 전주대 외식산업학과를 중심으로

이에 따르면 청년키움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해 전주시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자신의 자본금 없이 실제 창업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역 청년들이 준비된 외식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약체·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맛집 창업교육관이라는 복합교육 공간을 조성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실전 창업 경험 및

지역 내 청년들이 모여 이뤄진 팀이며, 전주 첫맛장집에서 운영하는 만큼 전주에 대한 애정을 담은 든든한 한상차림으로 전주의 10미 나리와 공나물 등을 활용해 미우달밥, 늘봄국밥, 가츠동, 소바 등의 메뉴를 구성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 강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슬(16학번) 팀장은 "청년키움식당의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만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창업의 결심을 다지게 됐다고 했다.

/장은성기자

EBS 활용 영어교육 내실화

도교육청, 오늘부터 10월까지 'AI 팽톡 활용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부터 10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EBS와 함께하는 AI 팽톡(EBS 콘텐츠) 활용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AI 팽톡 등 EBS 콘텐츠 활용을 위한 것으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도내 EBS 활용교사와 EBS 소속 강사들이 교원과 학생·학부모에게 EBS 콘텐츠를 소개하고, 활용사례를 안내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AI 팽톡 주요 기능

소개, 개인별 회원 코드를 통한 실습 및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EBS와 함께하는 AI 팽톡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도내 EBS 활용교사와 EBS 소속 강사들이 교원과 학생·학부모에게 EBS 콘텐츠를 소개하고, 활용사례를 안내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AI 팽톡 주요 기능

/장은성기자

차세대 산화갈륨 전력반도체 신소재 개발

전북대 최철종 교수
시지트로닉스와 공동 연구

누설전류 적고 온저항도 낮아... 사업화 수준에 근접

전북대학교 최철종 교수와 (주)시지트로닉스(대표 심규환)는 공동 연구를 통해 1.2kV~2.6kV의 고전압 환경에서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산화갈륨 전력반도체 신소재 기술을 개발에 화제다.

이에 따르면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신소자는 저손상 식각기술(표면을 부식시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 형성된 도랑(trench) 구조에 P형 반도체 박막을 집합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기존 평판형 소자와 비교해 항복전압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신소자의 누설전류(~5x10⁻⁶A/cm²)와 온저항(~5 mΩcm²) 특성은 충분히 사업화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철종 교수는 "후속 기술개발로 더욱 높은 전압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자의 구조와 핵심 제조공정을 개발해 기존의 전력반도체 성능을 능가하는 제품으로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화갈륨 벌크 기판의 대규



전북대 최철종 교수와 (주)시지트로닉스의 개발진.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경화를 통해 1kV급을 넘어 10kV급으로 대전력 스위칭을 제어하는 성능을 갖추면 질화갈륨(GaN)이나 탄화규소(SiC)와 차별화 된 응용분야로의 확장성도 기대된다. 이 기술은 전북대 반도체물성연구소장으로 10여 년 간 국가 R&D 및

인력양성을 주도해 온 최철종 교수가 갖고 있는 연구 경험과 경쟁력이 기반이 됐다. 반도체 물질의 분석과 평가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최 교수는 산화갈륨 반도체의 결정성이 여타 반도체와 다르게 특이한 결정구조지만 고품질 대규격으로 성장되기

/장은성 기자

'4년간 갈고닦은 전공 지식, 하나의 결과물로'

전주대 산업공학과,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총 9개 팀 참가... 분야별 디자인 작품 선보여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학과장 정호연)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산업공학과는 LINC3.0사업단의 지원과 지능형기계부품사업단(단장 이종호)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8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은 전공 지식을 활용해 자신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작

품을 선보이고 경쟁하는 자리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학 1관에서 참가 학생들과 학과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계 전문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맡았다. 총 9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경험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경진대회에서는 산업공학과 학생들의 창의력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다양



한 작품들이 소개됐는데 그 중 Smart Farmer 팀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른 작물 생육 비교가 기술 및 아이디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자율방범대 팀의 SLAM구현을 위한 ROS기반 모바일 자율주행 연구가 우수상을, 인전이 종이 팀의

'AHP 분석을 이용한 수상드론' 연구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정호연 학과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전문성과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도교육청, 여름방학 석면 모니터단 교육

추진방향·안전관리 등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동양고 시청각실에서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뤄지는 40개교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장 또는 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시민단체, 석면감리원, 석면 해체·제거업체 현장관리인, 해당 공사 감독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학교 석면 제거 추진방향 △석면 일반 및 안전 관리 △학교 석면 모니터단 활동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 여름방학 동안 40개교에서 2만6,274㎡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현재 도내 학교시설 연면적 505만㎡(800개교) 중 석면 보유 면적은 약 12만㎡(97개교)로, 연면적 대비 2.33%다. 이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중 188억원을 투입해 약 8만4,000㎡의 사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여 면적은 약 3만3,000㎡(0.6%)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학교 석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장은성 기자